

Safety Zoom in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 성공적 개최에 만전
화합과 조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내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6월 1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국제산업보건대회 국내조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신진규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이근오 한국안전학회 회장, 심운택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등 국내조직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먼저 대회의 진행계획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대회는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조화를 이루어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조각보'를 모티브로 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즉 세계 각국의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만큼 화합과 조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최식 등의 공식행사는 대회의 주제와 방향성을 공유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알리는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밖에 참석자들은 '발표세션 및 참가자 확대 방안', '재정지원 정책 및 후원 정책 검토·승인' 등 대회 준비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진규 회장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산업보건대회는 내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120개국의 산업보건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약 3,4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